

私たちは知らないうちにいつも繋がっている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였다

김성준

現在、コロナ渦において、昔のように簡単に互いの国へ旅行ができる状況ではない。そのため、多くの人が旅行が再開することを待ちながら、オンラインで映像を通じて自分が旅行している気分を味わっている。私もその一部である。私がこれを書く理由は、自由に日韓の往来できた時の思い出を文字で書き残すためでもあり、この文を読む人達にも自分の思い出を、伝えるために書くことにした。

私が日本で暮らしていた時、建物のランキングをつける番組をみたことがある。これが後に、済州で、日本人とのつながりを感じるきっかけとなる。その中で記憶に残った建物は日本で建築賞を授与した長野県の茅野市民図書館だった。ガラス帳りの外装が特徴で、自然の中にある開放的な空間が唯一無二な印象を受けた。さらに、自然に覆われているにも関わらず駅と近く便利な立地で本が好きな私にとっては、夢のような空間だと感じた。しかし、訪れる機会がなく心残りになっていた。時間が経つに伴ってその心残りを忘れつつあったが、済州旅行をした際に思い出すきっかけとなる建築物と出会った。それは「グラスハウス」という建物であった。グラスハウスは、同じくガラス張りで開放的な建築物という点で共通していた。日本のテレビ番組で目にした建物のおかげで、グラスハウスに興味を持ったが、調べてみると偶然にもグラスハウスは日本の建築家である安藤忠雄氏がデザインした建物であった。茅野市民図書館を造った建築家と違う人であったが、済州でも魅力的に感じた建物は、偶然にも日本人の建築家によって創られたものだった。グラスハウス以外にも日本系の建築家が造った建物がいくつもあって驚いた。コロナで国同士の往来はできないが、韓国国内にいても、ふとしたところで日本とのつながりを感じ、私が知らないだけでたくさんのつながりがあるのだらうとワクワクする気持ちになった。

もう一つの繋がりを感じたのは、日本で住んでいた際に親知らずができて苦労したときである。この時に、日本と済州の似た文化を感じた。それは、親知らずを抜いた帰り道に、偶然、通った神社がきっかけである。歯を抜いた後の痛みで苦しんで帰っていると、日本で1つしかない歯の神様がいる、歯神社という所を通った。神社の前にはなで石という石があり、撫でると痛みがなくなると書いていたので撫でた思い出もある。一方で、済州旅行の時に済州は蛇神に仕えるため蛇に対して良いイメージを持ち、蛇だけでなく石や厨房道具など様々な神に使える土俗信仰だと聞いた。これらの経験から、日本の歯神と済州の蛇神は、様々な神に仕えるところがお互いに似ていると思った。文化が似ているというのは昔からお互いに交流があり、お互いの文化に影響を受けたという証拠でもある。今まで書いた似ている文化を上手に活用すれば日本と済州はお互いにもっと良い影響を及ぼして関係にも発展があるのではない。

私はこの2つの経験から、自分から見て互いの国の共通点はないように見えても、知れば知るほど、意外な関わりがあったり、共通の文化があったりすると改めて感じた。今はコロナの影響もあり、世の中が混乱している状況が続いている。国を越えての往来はまだ先が見えないが、自分の好きな日本に行けないからこそ、普通に生活しているだけでは分からない、歴史や文化を学び、触れることはとても大切だと考えている。今の時代は、同じ思考を持った人だけで団結するのではなく、異なるからこそ互いに理解しようとする力が、より重要になってきていると感じる。そのため、一人一人の意識と行動が最も重要だと考える。私が感じた済州と日本の繋がりは、極一部であり、人によって感じる繋がりがたくさんあると思う。その繋がりを大切にしていきた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옛날같이 간단히 양국 간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유로운 여행을 기다리면서, 다양한 SNS를 통해서 자신이 여행하는 듯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다. 나 또한 그러한 사람 중 한 명이며, 이 글을 통해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했던 때의 추억을 글자로 남기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내가 느꼈던 추억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일본에 있었을 때, 건축물 랭킹을 정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다. 그중에 기억이 남는 건물은 일본 건축상을 받은 나가노현의 치노시민도서관이었는데 이 건물 덕분에 제주도에서 일본인과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평범한 건물의 도서관이 아닌 통유리로 건축된 외관이 특징이며 자연 속의 개방적인 공간이 유일무이한 인상을 주었다. 또한, 자연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역과 가까워 책을 좋아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마치 꿈과 같은 공간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방문할 기회가 없어 아쉬움으로 남아있었다. 시간이 흘러 아쉬움도 흘러갈 때쯤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아쉬움을 상기시키는 건축물과 만났다. 바로 ‘글라스하우스’라는 건물이었다. 글라스하우스는 통유리라는 외관과 개방적인 공간이라는 점이 쌍둥이인 듯 닮아있었다. 글라스하우스에도 흥미를 느껴 조사해 본 결과, 우연히도 글라스하우스는 일본의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건물이었다. 치노시민도서관을 만든 건축가와 관계는 없지만, 제주도에서 매력적으로 느꼈던 건물이 우연찮게 일본인 건축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글라스하우스 이외에도 제주도에는 일본인 건축가가 만든 건축물이 몇 군데 더 있어서 놀랐었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왕래는 어렵지만, 한국에서도 우연한 기회로 일본과 연결되어 있다는, 유대감을 느끼고 지금까지 내가 몰랐을 뿐 또 다른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는 기분이 되었다.

또 다른 경험은 일본에서 사람니 때문에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을 때이다. 이때의 경험이 제주도와 일본의 문화가 닮아있다고 느끼게 해주었다. 사랑니를 빼고 돌아가던 길, 우연히 지나가면서 마주친 신사가 계기가 되었다. 사랑니를 제거한 직후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일본에 하나밖에 없는 이(齒)에 관한 신사, 하신사(齒神社)라는 곳을 지나갔다. 신사 앞에는 쓰다듬는 돌멩이(なで石)가 있었다. 쓰다듬으면 고통이 사라진다고 쓰여 있어 고통이 심한 나머지 속은 썸 치고 돌멩이를 쓰다듬었던 기억이 있다. 한편, 제주도 여행 때 제주도는 뱀 신을 섬기기 때문에 뱀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뱀뿐만 아니라 돌, 주방 도구 등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토속 신앙이라고 들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경험을 통해 제주도와 일본은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모습이 서로 닮았다고 생각했다. 또한, 문화가 닮아있다는 것은 옛날부터 문화교류가 있어 서로의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앞서 이야기한 닮아있는 문화를 잘 활용한다면 제주도와 일본은 서로 더욱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양국의 공통점이 없어 보였지만 앞에서 겪은 경험을 통해 알면 알수록 의외로 서로 관련이 있거나 닮아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지금은 코로나19를 시작으로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왕래를 하는 것은 아직 멀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본을 갈 수 없다고 해서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항상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접하려고 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같은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를수록 이해하고자 하는 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내가 느꼈던 제주도와 일본의 감정은 극히 일부분일 뿐,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은 수도 없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라는 달라도 언제나 서로 하나같은 감정을 소중히 간직해 나가고 싶다.



(수상작 원본은 일본어이며, 한국어 번역본은 수상자가 작성함.)